다른그림차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 강화 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단 19세 미만 환 자,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응급 환자 등은 본인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5월 23일 서관 통합창구에서 원무팀 직원이 내원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함궤 만드는 뉴스 매거진

전화번호: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소속: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원내식당5만원이용권 김경희(심장검사팀) 김소희(수술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조혜경(외과간호1팀)

조혜진(외과간호2팀)



한준희(적정진료팀)

캔버스 북커버

신영주(심장병원간호팀) 이경란(내과간호1팀) 최유진(암병원간호2팀) 최창용(병리팀)

달마이어 1만원 이용권

김민곤(영상의학팀) 오정화(외과간호2팀) 이예지(진단검사의학팀) 이향숙(암병원간호2팀) 최현순(수술간호팀)



☑ 지난호 정답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만나요'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내과간호1팀 이유라 주임이 추첨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독자연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4년 6월 15일(토) 발표 제728호(2024년 7월 1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식당10만원이용권

박소윤(심장병원간호팀)

당첨자 명단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26 2024. 6. 1



"AMC의 선진 의료 배우러 왔어요"

우리 병원 개원 직후인 1990년대 초. 당시 일반외과 이승규 부교 수를 비롯한 의료진은 장기이식술을 배우기 위해 독일 하노버대

학병원으로 연수를 떠났다. 30여 년 전 배우는 '연수생'이었던 우리 병원은 이제 전 세계 의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 암, 심혈관, 장기이 식 등 모든 임상 분야에서 해외 의학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미국, 영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98개국 3,500명의 해외 의학자가 장·단기 연수를 받고 돌아갔고, 우리 병원은 이들과 함께 글로벌 네 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진은 5월 28일 윤용식 로봇수술센터소장(화면 앞)이 해외 의학자들에게 실험동물을 이용한 로봇수술 술기를 지 도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4면)

02 NEWS 심부전에 의한 판막합병증 약물치료법 찾아 08 잡(job)·담(談) 고위험노년환자지금만나러갑니다

12 협업의 가치 이해와 배려로 만든 '당일 진료 프로세스'

14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자연이 준힐링과 배움





NEWS 2024. 6. 1 Vol.726

심부전에 의한 판막합병증 약물치료법 찾아



강덕현 교수

심부전이 지속되면 심장이 비대해지고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 류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해 사 망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심부전의 표 준치료인 약물치료로 판막질환 합병증 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은 기존 당뇨

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글리플로진' 계열의 약물을 치료에 적용한 결과 심부전 증상과 승모판 폐쇄부전이 모두 현저히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 114명을 무작위 배정한 뒤 표준 약물치료에 더해 글리플로진을 복용한 집단 58명과 표준 약물치료에 더해 위약을 복용한 집단 56명으로 나누어 1년 뒤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승모판 혈액

역류량이 글리플로진 집단에서 -9.1±10.2mL로 위약 집단의 2.1±15.6mL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약 집단에 비해 글리플로진 집단에서 혈액 역류량이 약 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부전 중증도를 평가하는 NYHA 단계가 개선된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글리플로진 집단의 44.8%에서 심부전 증상이 호전된 반면 위약 집단은 14.3%에서만 심부전 증상이 호전됐다.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및 사망 등의 중대 사건은 글리플로진 집단의 2%에서 발생해위약 집단의 9%에 비해 드물게 발생했다.

강덕현 교수는 "글리플로진 계열 약물로 치료한 환자들에서 승모 판 폐쇄부전이 개선됨에 따라 심부전 증상도 더욱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심부전 환자들의 약물치료 지침을 더욱 최적화해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지인 「서큘레이션」에 최 근 게재됐다.

BMI 52 여성에 단일공 로봇 자궁절제 세계 첫 성공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왼쪽)가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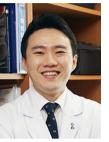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팀이 체질량지수(BMI) 52인 초고도비만 여성(키 154cm, 체중 124kg)을 대상으로 단일공 로봇 자궁절 제술을 세계 최초로 시행해 성공했다. 이번 수술은 지금까지 진행된 로봇 자궁절제 사례 중 가장 비만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사라 교수팀은 제왕절개 및 난소 수술로 인한 심한 유착과 자궁내막증, 골반통을 동반한 아랍에미리트 초고도비만 환자

(38세)에게 다빈치 단일공(SP·Single Port) 시스템으로 배꼽 안쪽만 절개한 후 자궁을 안전하게 절제했다. 환자는 여러 차 례의 출산과 수술 후 심각한 골반통증을 겪고 있었으나 비만 과 유착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본국 에서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어 아랍에미리트 아 부다비 보건청을 통해 우리 병원으로 의뢰됐다.

이사라 교수는 국제진료센터의 원격진료자문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의 수술 가능 여부를 검토했고 단일공 로봇 자궁절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단일공 로봇 자궁절제술은 배꼽 안쪽으 로만 절개해 모든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적고 회 복이 빠르며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 환자는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지난 3월 11일 아랍에미리트로 돌아갔다.

이사라 교수는 "수술을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술을 성공적으 로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면역항암제로 치료 안 되는 간암, 표적치료제 효과



우차호 보교수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면서 높은 치료 효 과를 보이며 1차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면역항암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이 악화된 환자들은 표준 치료법이 없 는 상황이다. 이 때 간암 표적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평균 생존 기간이 14개월이 넘었다는 전향적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종양내과 유창훈 부교수팀은 수술이 불가능해 면역항암제 치료를 실시한 간세포암 환자 중 암이 악화된 환자 47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다중표적치료제인 카보잔티닙으로 치료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카보잔티닙 치료 전사용한 면역항암제 종류 및 치료 횟수, 카보잔티닙 치료 순서등에 따라 세부 집단으로 나눠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면역항암제 종류와는 관계 없이 카보잔티닙을 면역항

암제 치료 후 2차 치료제로 사용한 17명의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이 14.3개월이었다. 카보잔티니을 3차 치료제로 사용한 경우는 평균 생존 기간이 6.6개월이었다. 평균 카보잔티니 치료 기간은 2.8개월이었으며 카보잔티니 치료 시작 후 전체 평균 생존 기간은 약 9.9개월이었다. 기존 연구에 의해 알려져 있는 대로 카보잔티니 치료 후 부작용으로 손발바닥 홍반성 감각 이상, 피로감, 고혈압, 설사 등이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었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로 대부분 치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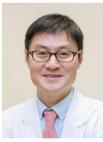
유창훈 부교수는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포암 치료에 있어서 2차 치료법에 대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립된 표준 가이드라 인이 없었는데, 임상 2상 연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번 전향적 연구를 통해 카보잔티닙이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정확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간질환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중 하나인 「유럽가학회지」에 최근 게재됐다.

자궁내막종 치료에 에탄올 경화술 효과



신지훈 교수



김성훈 교수

난소 기능이 이미 떨어졌거나 수술 후 재발한 자궁내 막종 환자에게는 난소 기능을 최대 한 유지하기 위해 수술 대신 '에탄올 경화술'이 많이 시

행되고 있다. 얇은 바늘침을 통해 자궁내막종 내 이물질만을 제 거하고 에탄올을 주입해 화학적으로 파괴시키는 시술이다. 이 때 자궁내막종 내 이물질이 매우 끈적끈적한 성분이라 얇은 바 늘침으로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웠다.

영상의학과 신지훈·산부인과 김성훈 교수팀이 바늘침 대신 카 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테터를 삽입해 에탄올 경화술을 이틀에 걸쳐 두 번(2세션) 시행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저한 결과, 난소 기능은 유지되면서 자궁내막종의 크기는 현저히 술지,에 최근 게재됐다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20년 6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카테터를 이용한 2세션 에탄올 경화술을 받은 자궁내막종 환자 22명(31개의 병변)의 시술 6개월 뒤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궁내막종의 지름이 시술 전 평균 5.5cm 에서 시술 후 1.4cm로 약 74.5% 감소했다. 자궁내막종의 부피 는 114.6cm³에서 3.4cm³로 약 96.4% 감소했다.

환자의 난소기능을 측정하는 혈중 AMH 농도 변화에 있어서는 시술 전 1.37ng/ml에서 1.18ng/ml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없이 건강하게 유지되었다. 관찰기간 동안 치료된 자궁내막종 이 다시 성장한 경우는 없었으며 시술과 연관된 주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도 없었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질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시술이 진행되어 흉터가 남지 않고 통증도 적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심혈관 및 인터벤션 영상의학학 술지」에 최근 게재됐다. **NEWS**

해외 의학자 로봇수술 교육 과정 신설



째)와 로봇수술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해외 의학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우리 병원이 해외 의학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수술 교육 프로 그램을 최근 신설했다. G2G(Government to Government) 연수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로봇

수술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되며 산부인과 박정열·이사라 교 수, 대장항문외과 윤용식 교수 등이 지도를 맡는다.

지난 2007년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한 우리 병원은 2017년 1만례, 2021년 2만례를 달성했으며 매년 4,000여 건 이상의 로봇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첨단 의료 장 비를 갖춘 우리 병원은 지난해 말 로봇수술 국제 교육기관인 '에피센터(Epicenter)'로 지정되기도 했다. 우리 병원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로봇수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외 의학자 들에게 최신 술기를 전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모하마드 무사 임상강사는 "로봇수술 교 육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술기와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교 수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고 말했다.

가정용 수면 무호흡 검사 장치 안전성 연구



신항식 부교수

가정용 수면 무호흡 검사 장치(Home Sleep Apnea Testing, HSAT)는 환 자가 집에서 직접 수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여 주지만 장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 절차가 부족해 임상적 신뢰성을 확보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융합의학과 신항식 부교수팀이 HSAT

의 FDA 승인 절차와 임상 효과를 분석해 안전한 HSAT 개

발 및 상용화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FDA 승인을 받은 HSAT 를 분석한 결과 Type-3 장치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으며 대 부분 장치들이 전기 안전 및 생체 적합성 표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장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상시 험과 임상적 유효성 보장을 위한 가이던스 개발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npj 디지털 메디신」에 최근 게재됐다.

성형외과 의료진 미국 교과서 집필



우리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이 집필에 참여한 미국 성형외과 교과서 「Plastic Surgery 5th Edition」이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전 세계 성형 외과 의사들이 진료와 수술에 참고하는 교과서

로 홍준표·엄진섭·최종우·오태석 교수, 서현석·한현호 부교수가 저자로 참여해 ▲아시아인의 안면 성형 ▲ 하지 외상의 관리 ▲하지 재건술 ▲자가 유방 재건 등에 대한 지식을 담았다.

2024. 6. 1 Vol.726

취약계층 어르신 식료품 전달



(오른쪽부터) 방사선종양팀 이윤희 대리, 김진수 유닛 매니저, 박제완 주임이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 병원 직원 봉사단이 강동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취약계

층 어르신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5월 7일 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봉사에는 직원 20명이 참여해 총 60 가구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했다. 우리 병원은 매년 상·하반기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하 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에 참여한 방사선종양팀 김진수 유닛 매니저는 "우리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보 며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온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사용된 물품은 우리 병원 직원들이 매달 급 여 끝전을 모아 후원하는 모아사랑 기금으로 마련됐다.

보이는 ARS 서비스 오픈

이달의 후원자



마트폰으로 우리 병원 대표 번호(1688-7575)로 전화를 걸어 '눈 으로 보는 ARS'를 선택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진료예약 조 회, 변경 및 취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통 화 연결 대기시간 단축 ▲청각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 고객 편의 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개인 및 단체

002000	1/12/16/				
나르지오	100,000,000원	김경진	10,000,000원	㈜제이씨에이치	1,000,000원
박재순	50,000,000원	김종일	100,000원	㈜행복한씨엠오	5,000,000원
안지완	100,000,000원	박시원	1,000,000원		
㈜KS국민신발	100,000,000원	백경옥	1,000,000원	교육	
㈜매일마린	10,000,000원	송마리	500,000원	(주)인팩	100,000,000원
		신현숙	10,000,000원		
불우환자 지원		예수이름교회	1,000,000원	연구	
고민시	50,000,000원	이윤슬	1,000,000원	윤종철	5,000,000원
권보아	50,000,000원	장현종	1,000,000원	이혜환	1,000,000원



정광철 아산재단 사무총장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30,000,000원

- 2024년 5월 14일 기준, 가나다 순

※ 문의 : 대외협력팀 후원유닛 (원내 6207)

NEWS



김성배 교수 머크학술상 최우수상



🧥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가 5월 17일 열린 대한종 양내과학회 제22차 심포지엄에서 머크학술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머크학술상은 국내 두경 부암 분야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국내 의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교수는 '새로운

항-ErbB3 단일클론항체, 바레세타맙(ISU104)을 난치성 고형암 및 단일요법이나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암 등에서 세툭시 맙과 병용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 상 을 받았다.

박정열 교수, 강옥주·조의리 임상전임강사 학술상







임상전임강사, 병리과 조의리 임상전임강사

박정열 교수 강옥주임상전임강사 조의리임상전임강사 팀이 4월 26일

부터 이틀간 열린 대한부인종양학회 제3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가임력 보존 치료를 시행한 자궁내막암 환자들에서의 예후 지 표로서 L1CAM과 베타카테닌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우수구연 부문 신풍호월 학술상을 받았다.

윤영인 부교수 젊은 연구자상



간이식·간담도외과 윤영인 부교수가 5월 1일 부터 4일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간이식 학회 국제학술대회(ILTS 2024)에서 젊은 연구 자상을 받았다. 윤 부교수는 '생체간이식에서 의 원내 사망 위험요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해

이 상을 받았다.

김철호 조교수 국제학술상



정형외과 김철호 조교수가 4월 26일부터 이틀 간 열린 대한골절학회 제50차 학술대회에서 국제학술상을 받았다. 김 조교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복용 중인 근위 대퇴 골절 환자에게 응급 수술 시행의 안전성:

성향 점수 매칭 분석' 연구 등 11편의 SCIE 논문을 게재한 공로 를 인정받았다.

북미방사선학회 3D프린팅분과학회서 수상











우리 병원 연구팀이 최근 열 린 북미방사선학회(RSNA) 3D프린팅분과학회에서 수상 했다. 건강의학과 경윤수 조 교수와 융합의학과 옥준혁·온 성철 연구원은 '복강경하 신장

암 부분절제술에서 4D프린팅으로 제작된 맞춤형 수술 가이드 를 이용한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술'을 주제로 구연발표 세션에 서 1등 상을 받았고,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희 교수, 윤재광 조 교수, 융합의학과 김현정·옥준혁 연구원은 '폐절제술을 진행한 환자의 체내에 삽입할 폐와 물리적 특성이 비슷한 폐 보형물 임플란트 제작'을 주제로 Rapidfire 구연발표 세션에서 2등 상 을 받았다.

이범희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소아청소년전문과 이범희 교수가 5월 22일 열 의 진단법, 새로운 발병 기전에 기반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신약의 신속한 국

내 도입을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료진 최우수구연상





성형외과 한현호 부교수, 김 형배 임상전임강사 등 의료진 이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바 르셀로나 유방 학술대회(BBM 2024)에서 'CT를 이용한 BMI,

한현호 부교수 김형배임상전임강사 나이에 따른 피판 두께와 유방

높이의 비교: 유방 재건 피판 선택의 고려'를 주제로 발표해 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연구노트

원하는 혈관만 확장시키는 급성 혈관폐쇄의 광역학치료



안과 이준엽 부교수

이준엽 부교수는 대한안과학회 제131회 학술대회에서 '빛에 반응해 일산화질소를 방출하는 화합물을 이 용한 급성혈관 폐쇄의 광역학치료'를 주제로 32회 탑콘안과학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우 리나라 안과의학자가 발표한 국내·외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업적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연구 는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급성 혈관폐쇄 질환의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망막혈관폐쇄로 하루아침에 시력을 분리되어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 일산화질소 공급이 가능하다. 이다. 이번 연구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적절한 혈관확장 효 능성도 증명했다. 과를 유도할 수 있는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했다. 공학분야 선 도연구센터 집단연구과제로 출발했으며 물리, 화학, 재료, 기계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화합물 분야 연구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연구를 진행한 지 5년 을 뇌혈관 및 망막혈관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신경 만에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이번 연구를 통해 생체모방 좋은 약물로 다듬어진다면 본격적인 신약개발에 속도를 내보 (biomimetics)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 고 싶다. 또한 생체모방을 이용한 다른 후보 화합물에 대해서도 다. 생체모방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특징과 원리를 응용해 새로운 물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다. 이러한 생체 집단연구과제로 시작된 공동연구가 이제 하나둘 결실을 맺고 모방 기술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개발한 철-일산화질 소 복합체를 본 연구에 활용했다. 이 복합체는 빛에 반응해 일 지식들이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 산화질소를 방출하는데 빛에 의해 선택적으로 일산화질소가 는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잃은 환자를 진료하며 의사로서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까웠 또한 KAIST 연구팀의 도움으로 광화학 양자수율 측정 및 밀도 던 경험이 있다. 많은 개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급성 혈관폐쇄 범함수 이론을 적용해 화합물의 빛 반응 시 철에서 일산화질 에 사용할 수 있는 혈관확장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다른 소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이 치료법의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잠재적 부작용과 위험성 때문 생물학적 기전과 효능을 확인하고 혈관폐쇄 질환에의 적용 가

> 외과 이승주 부교수, 신약개발지원센터 오수진 부교수와 팀을 이뤄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향후 연구 데이터가 축적되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고자 협력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있다.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넓어진 시야와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잡(job)·담(談) 2024. 6. 1 Vol.726

고위험 노년 환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통합돌봄지원팀 권영혜 과장, 서연미 대리



다학제팀 미팅에서 선제적 중재 관리를 논의하는 모습. (왼쪽부터) 노년내과 백지연 조교수, 약제팀 한슬기 주임, 권영혜 과장, 서연미 대리.

9개 진료과 17개 병동을 대상으로 고위험 노년 환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연령친화적 진료 시스템

AMIS 3.0 시니어환자관리창에 65세 이상의 고위험(임상허약 척도 5점 이상) 입원 환자가 분류되면 권영혜 과장과 서연미 대리가 48시간 이내에 방문한다. 기능별 악화 요인을 평가하고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과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 다학제팀에서 노년의학적 권고와 맞춤형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진료과는 주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의 건강위해 요인을 알게 되어 회복에 필요한 요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시니어환자관리(Acute Care for Elders, ACE)팀은 전담전문의 와 2명의 전담간호사, 약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고위험 환자의 상태를 추적하고 다제약물 검토·조기재활·가족돌봄정 보상담 서비스 과정을 복기하며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



66

존중을 담은 표정과 말투로 다가가면 수월하게 협조를 끌어낼 수 있어요.

발견과 소통의 간호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서연미 대리는 노년 환자와 눈을 마주치고 인지상태를 확인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밤사이 6차례의 배뇨로 잠을 설쳤다는 환자의 표정이 어두웠다. 이에 음료 섭취 습관을 점검하고 교정 교육을 시행했다. 그리고 비뇨의학과에 관련 처방을 의뢰했다. 수면이나 영양이 부족하면 주 치료를 이겨낼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챙기는 요소다. 얼마 후에 만난 환자는 양질의 수면으로 낮에 활동량이 늘었다며 서 대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원래 적게 먹어요!" 환자가 생각하는 기준과 환자에게 필요한 기준이 상이할 때가 많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해서 그동안 알던 방법으로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관리해 주세요." 서 대리가 존중과 배려를 최대한 담아 권고하면 환자도 수긍하며 개선 노력을 약속한다.



서연미 대리가 비위관을 삽입한 노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66

일반 성인 중심의 시스템에서 노년 환자 전문 간호의 필요성을 조금씩 느끼게 됐어요.

ACE팀 일원이 되기까지

권영혜 과장이 병동에서 근무하던 시절, 노년 환자 간호에 어려 움을 자주 느꼈다. 성인 화자에 비해 질화과 복용 약이 다양하 고 전조 증상 없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고령 환 자의 적극적인 수술 치료가 늘면서 전문 간호에 대한 갈증이 깊어졌다. 대학원에 진학해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 다. 2020년 원내에 고위험 노년 환자를 위한 시스템을 논의하 는 다학제팀이 자발적으로 조직되면서 이듬해 권 과장도 합류 했다.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와 마주 한 자리가 무척 떨렸지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전에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 목표와 방향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적용 과정에서 많은 부 서와 소통했다. 선제적인 서비스로 재원일수, 입원 중 사망률 등 이 감소한 것을 검증하면서 2023년 ACE팀이 공식 출범했다. 환자의 청력이 떨어지고, 현장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 결정 과정에서 치료 주체인 환자가 제외되기 쉽다. 환자 중심 의 치료와 간호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입원부터 퇴원 후까지 의 안심패키지 플랫폼을 앞으로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혜 과장(왼쪽)이 164병동에 방문해 노년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혜빈 주임과 논의하고 있다.



서연미 대리(가운데)가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에서 시니어환자관리창 고도화 작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과 국내 병원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듭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진가

활동 초반에는 노년 환자가 악화되기 전에 예방 조치로 치료 목표를 달성한다는 개념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의료 진도 인지하지 못한 필요를 발굴하고 보완해 나갔다. 항암 치료로 쇠약해진 노년 환자가 있으면 조기재활팀에 의뢰해 환자스스로 보행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낙상 예방 교육을 발빠르게 펼쳤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한 입원생활과 빠른 퇴원 계획으로 이어져 의료진의 호응을 얻었다. 요즘은 병동에서 먼저 ACE팀에 도움 받을 방법을 질문하거나 요청한다. "중증 환자가 많은 우리 병원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에 큰 힘을 얻는다.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다른 병원의 요청에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지방에서 올라온 입원 환자를 느지막이 방문했다. 중병 치료가 잘 될지, 교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걱정이 많던 환자와 보호자는 전담간호사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역시 서울아산병원은 다르네요!" 입원 치료 저해 요인을 관리하며 급성기 노년 환자도 안심하고 퇴원을 준비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는 일. 막연히 꿈꾸던 노년 전문 간호를 ACE팀의 일원이 되어 하나씩실현해 나가고 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최소 훈련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숨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잡(job)·담(談)' 코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이야기가 있는 산책

호른과 삶 ④

호른으로 배운 삶의 선순환



노년내과 정희원 조교수

'마음챙김'된 상태로 몰입하기

느리게 나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집중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충분히 운동하고, 술과 담배는 삼가는 것. 결국 몸과 마음 건강을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조화로운 상태가 될 때 연습 효과는 최고조에 달하고, 단 10분이더라도 연습에 몰입하는 경험이 쌓인다. 필자는 악기 연주에 몰입하는 데 영향을 주는 이 요소들의 위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콩쿠르에 출전했을 때의 이야기다. 과제곡이 상당히 어려워 연습 시간을 늘렸다. 본업에 지장을 줄 순 없으니 업무 외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했다. 자는 시간과 운동 시간을 줄이고 끼니도 거르며 연습 시간을 마련한, 지금 돌아보면 무척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퇴근 후 연습실로 뛰어가듯 이동해서 허겁지겁 연습을 했다. 매일 연습했지만 연주의 질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실수는 늘었다. 마음에는 긴장과 불안이 깃들었다. 오기가 생겨 매일 연습량을 더 늘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수개월간 이러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중 노르웨이 음악원의 호른 연주자 율리우스 프라네비키우스 Julius Pranevičius 교수의 글을 읽고 '아차' 싶었다. 그는 좋은 호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기를 연습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건강한 사람이 돼야 함'을 역설했다. 스트레칭, 명상과 요가, 알렉산더 테크닉Alexander Technique 연습,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 잘 먹고 잘 자기 등을 이야기했다. 건강의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만드는 선순환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그의 조언을 따라 삶의 불균형을 점검했다. 연습시간이 줄었지만 연주 기량은 오히려 몇 달에 걸쳐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후로는 짧은 시간이더라도 반드시 '마음챙김' mindfulness된 상태' 즉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고 산만한 자극을 제거한 뒤 연습을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다.

우리나라에는 무엇이든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만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뼈 빠지게' 노력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예컨대 호른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 호된 레슨을 받으면서 온종일 호른 연습만 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더 좋은 결과를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하고 모든 계량 지표는 매년 우상향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여러 압박에 시달리는 연구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수십 년 뒤를 내다보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을까? 몰입은 커녕 '마음 놓침 상태'로 전화, 메신저, 이메일을 통해 쏟아지는 잡무를 허겁지겁 해치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고장 난 채 한 가지 기예에만 모든 노력을 쏟으면 설령 천재라도 '조로(早老)' 즉 가속노화에 빠질 수 있다. 사무엘 울만Samuel Ullman의 시 〈청춘〉에서처럼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雪]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氷]에 간 할 때 그대는 스무 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자기 효용감이나 성취감을

2024. 6. 1 Vol.726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과업의 경험이 보상과 내적 동기 부여가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 축적'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갉아먹고 업무 효율마저 떨어뜨리니 궁극적으로 조직의 안녕도 해치게 된다. 비행기도 안전을 위해서 최대 출력으로는 이륙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과정과 최상의 결과 모두를 얻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메타인지 키우기

악기 수련은 연주자로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난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차 치하고 일단 현재의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오 케스트라에서 음정이 맞지 않는 한 명의 호른 연주자는 호른 섹션의 화성 전체를 와해시킨다. 호른 섹션의 화성은 마치 지용성인 현악기와 수용성인 관악기를 섞는 유화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결국 음정이 좋지 않은 연주자 한 명이 오케스트라 전체의 음정을 삐걱거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않는 경우가 많다.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것이다. 아마추어 연주단체에서는 연주자격 concertworthiness이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결국 동료 연주자와 청중은 원인과 메커니즘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삐걱거리는 연주를 경험하게 된다.

아마추어 음악인 중에는 레슨을 잘 받다가도 어느 정도 연주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교만에 빠져 레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배움이 멈추면 역량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착된다. 뛰어난 연주자들과의 차이를 좁히려면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번거롭더라도 연습할 때 꾸준히 녹음하고 들으며 문제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듣는 귀가 열릴수록 문제가 세밀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곧 역량 개선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는 전문직업인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초심을 잃고 조로에 빠진 연구자들은 점차 계량 지표를 충족하는 것을 중시하며 '연구를 위한 연구'를 좇고, 깊은 과학적 사유와 문제 해결의 본질적 과정은 소외시키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 전문가로서의 본질적 가치는 상실하고 현실의 문제를 볼 수 없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가는 것이다. 연구자와 정책가들이 연구 과정 자체, 곧 질문하고 공부하는 데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수록 연구 역량은 더욱 높아지고 안목은 넓어질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호른을 배우며 느낀 네 가지 원칙은 모두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마음챙김 된 상태, 즉 몰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고 머릿속에 메타인지를 생각할 여유를 얻을 수 있다.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 실력이 느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다. 꾸준한 연습이 만든 예민한 귀는 연습의 이유를 더욱 확실히 만든다. 이처럼 장기적인 역량 축적의 선순환이 만드는 자기 효능감과 몰입감은 어떤 기예든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낙도(樂道)의 삶을 선사할 것이다.

^{※ &#}x27;이야기가 있는 산책' 코너는 필자의 전공 분야와 인접한 주제 또는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온 분야를 산 책하듯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필자로 노년내과 정희원 조교수가 '호른과 삶'을 주제로 4편의 글을 연재했습니다. 7월부 터는 이비인후과 안중호 교수가 자전거를 주제로 3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하기 위해 걷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 를 지닌 '산책'처럼 이 코너를 통해 마음의 휴식과 건강을 챙기길 바랍니다.

협업의 가치 1 2

이해와 배려로 만든 '당일 진료 프로세스'

당뇨병센터, PET 검사실

PET 검사를 위해 아침 일찍 지방에서 올라온 당뇨 환자 A씨. 혈당이 기준치보다 한참 높아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기준치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검사를 받고 귀가할 수 있었다.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 환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PET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F-18 FDG PET는 F-18 FDG라는 방사성의약품을 체내에 투여해 포도당 대사를 영상화하는 검사법이다. 체내 혈당이 150mg/dl 이하로 유지돼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당뇨 환자들 중에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직원들이 퇴근해야 할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적당히 검사를하면 안 되겠냐는 환자들의 불만도 문제였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혈당 탓에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꺾이는 모습이 보일때마다 의료진의 고민도 깊어졌다.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혈당을 낮추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 당뇨병센터와 PET 검사실 직원들은 검사 당일 환자들이 인슐린을 처방받아 혈당을 낮춘 뒤 PET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당일 진료 프로세스'를 생각해 냈다. 먼저 PET 검사실에서 고혈당 환자의 인적사항과 혈당 수치를 당뇨병센터에 공유하고 당일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하도록 했다. 당일 진료가가능한 경우 환자는 당뇨병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인슐린을 투여한 뒤 대기하도록 했다. 투여한 지 2시간 후 혈당을 체크해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4시간이 지난 뒤 다시 체크한 혈당이기준치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때 PET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절차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25명의 고혈당 환자가 당일 진료 프로세스를 거쳤는데,이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혈당 조절에 성공해 PET 검사를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었다. 검사가 지연되는 케이스가 줄



신관 지하다층 PET 검사실에서 기념촬영.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외래간호팀 이정수 대리, 김민경 과장, 핵의학팀 김성환 대리, 외래간호팀 신윤정 과장, 핵의학팀 남궁창경 유닛 매니저, 류재광 차장, 박장원 주임, 외래간호팀 국혜지 유닛 매니저, 이정림 차장, 정해련 대리.

어드니 검사실 슬롯 운영의 효율성도 증대됐고, 이제 더 이상 혈당이 내려가기만을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혈당 조절이 안 되어 여러 차례 PET 검사를 연기했다가, 당일 진료 프로세스 덕분에 원활히 검사를 마치고 기뻐하는 환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핵의학팀 김성환 대리

이해와 배려로 시작되는 협업

전국 각지에서 서울아산병원을 찾아오는 고혈당 환자들이 안 전하게 PET 검사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당 뇨병센터와 PET 검사실 직원들.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협업 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이나 직 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 막하다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어 왔지만 협업 프로세스는 잘 진행돼 왔어요. 환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협업이었기 때문에 소 통도 배려도 어렵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 는 협업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외래간호팀 신윤정 과장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침상에서의 마지막목욕



내과간호1팀 이유라 주임

간경화와 이로 인한 간신증후군을 앓던 김신화(여, 가명) 남은 패혈증 쇼크로 우리 병원 간센터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환자는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고용량의 승압제와 고농도의 산소 치료를 받았다. 보호자인 남편은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지만 염증 치료 후에 간이식을 고려해보자는 교수님의 말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에도 감염은 조절되지 않았고 급기야 환지는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소리만 지르는 상태로 악화됐다. 몸에 손이 닿으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고 정맥류 출혈까지 발생해 하루에도 몇 번씩 혈변을 보았다. 기저귀를 바꿀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면서 보호자도 함께 힘들어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울기만 하니까 뭐가 힘든지 알수없어서 답답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보호자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지금 보호자분은 옆에서 충분히 잘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순간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같이 최선을 다해서간호할게요"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간호를 통해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입원한 이후 한 번도 감지 못해 엉키고 헝클어진 환자의 머리카락과 각 절이 올라온 피부, 길게 자란 손발톱이 눈에 들어왔다. 보호자도 환자를 씻겨주고 싶었지만 몸에 연결된 기계도 많고 누워있는 사람을 씻겨본 적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다. 환자와 눈을 맞추고 "오늘 제가 환자분의 머리를 감겨드리고 목욕을 시켜 드려도 될까요?"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날따라 환자의 의식이 선명해 보였는데 그때나를 바라보던 환자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다.

침상에서 머리를 감기며 두피 마사지를 해드리고 길게 늘어져 있던 머리카락은 단정히 묶어드렸다. 온몸을 수건으로 닦은 뒤로션을 바르고 손발톱도 깔끔하게 잘라내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보호자도 옆에서 함께 환자의 몸을 닦아주었다. 몸을 만지기만 해도 울부짖던 모습과는 달리 "괜찮으세요? 아프진 않으셨어요?"라는 내 물음에 환자는 미소를 보이며 다시 내 눈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침상 목욕을 마친 뒤 보호자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해줄 생각도 못 하고 저는 또 못해준 걸 후회만 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딸, 아들이 아내를 보고 놀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예전처럼 말끔해졌네요. 저희 아내 예쁘고 건강할 때 모습을 남기고 싶은데 저희 둘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실래요?"라고 말했다. 두 분의 사진을 찍어 드리며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간호를 통한 새로운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며칠 후 환자는 결국 감염이 조절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어 가족 면회를 끝으로 임종했다. 그날의 침상 목욕이 환자에게는 마지막 목욕이었다는 생각에 그날을 다시 되돌아 보았다. 내가 제공하는 간호, 위로,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보듬을 수 있는 간호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병원보에서는 '협업의 가치' 코너를 통해 다양한 직종, 부서 간 협업 사례를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협업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음을 있는 봉사활동 서울어린이대공원 공원숲 가꾸기 봉사

자연이 준 힐링과 배움



법무팀 신예빈 사원

"98%는 자연이 알아서 해요. 우리는 2%만 돕는 거죠." 공원숲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병원 직원과 가족들이 모였다. 하루 동안 나무를 심으며 우리는 단 2%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숲을 가꾸는 데 엄청난 애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봉사 주제는 비밀(Bee-meal) 정원 만들기.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수분매개자의 먹이와 안 전한 서식처를 만드는 활동이었다. 나무와 꽃이 성장했을 때의 크기를 고려해 전문가들이 심을 위 치를 정하면 봉사자들은 뿌리와 식물의 키에 맞춰 땅을 파고 심기로 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걱정이 많았지만 적당한 비는 묘목이 촉촉한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줘 오히려 나무 심기에 최 적인 날씨라고 했다. 36명의 봉사자는 자연스럽게 구역을 나누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땅속에 자 고 있던 개구리나 지렁이를 발견했을 때는 체험학습을 나온 초등학생처럼 모두의 얼굴에 호기심과 신기함이 가득했다.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와 천진난만한 모습은 일하는 내내 큰

힘이 되기도 했다. 중간중간 비어 보이는 공 간은 식물이 점차 자라면서 채워질 거라는 기대감을 남기고 돌아왔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생물들을 위 해, 황사와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 하기 위해, 더 나아가 미래세대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참여한 이번 봉 사활동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공원숲 가꾸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과 가족들이 기념촬영 을 하고 있는 모습.



'풀 베드'는 병실이 꽉 차서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 다는 뜻으로 임상 현장에서 자주 사용된다. 의미 전달 은 되지만 queen 사이즈 침대보다 작은 full bed 사이 즈의 침대를 지칭하기도 하므로, 영어권에서는 'at full capacity' 또는 "Beds are fully occupied"와 같은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풀 베드



Use fully occupied beds at full capacity

Let's Talk

- A We cannot admit any more patients. All beds are at full capacity.
-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병상이 최대로 차 있 습니다.
- **B** I will let them know that hospital beds are fully occupied.
- 모든 병상이 꽉 찼다고 안내하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커버 좀 해 줘요' 라는 말을 쓴다. 영어 'cover'에는 뒤를 봐주거나 대리한다 는 의미도 있어서 누군가를 대신하는 상황에 곧잘 쓰인다. 다만 전치사 for를 붙여서 "Could you cover for me?"라 고 하자. 좀 더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Could you take over while I'm away?"가 있다.

커버 좀 해 줄래요?



Could you cover for me?



Let's Talk

- A I'm going for lunch. Could you cover for me? 점심 먹으러 갈 건데, 대신 좀 봐줄 수 있어요?
- B Sure, go ahead and enjoy your lunch. 그럼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암병원간호2팀 김혜정 대리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환자들은 치료와 수술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만나요'를 통해 저도 환자에게 감동을 주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과간호2팀 이미선 대리

'이야기가 있는 산책 - 호른으로 느낀 삶의 원리' 코너가 유익했습니다. 기본기를 반복해서 다지고 궁금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고 펀더멘탈을 키워가는 귀한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내과간호!팀 김재원 사원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최원묵 교수님을 자주 뵈었어요. 회진 때 환자의 말을 경청하며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MC IN(人)sight - 오늘에 집중해 희망을 쌓아가다'를 읽고 나니 교수님의 평소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하신 교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수술간호팀 박수진 주임

'마음건강노트 - 슬기로운 커피생활 즐기기'에 소개된 카페인의 장단점을 읽으며 제 커피 습관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2~3잔을 마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조절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래간호팀 김은숙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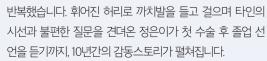
'잡(job)·담(談) - 해외 환자들과 병원의 접점에서' 코너에서 최은정 교수님을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예전에 교수님과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친절하고 따뜻하게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교수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SNS 돌보기

[리얼스토리]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



60도로 휘어진 척추 기형을 안 고 태어난 정은이(13). 그대로 성장한다면 호흡곤란이나 폐 부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 료진은 국내 최초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 수술(VEPTR)을 시 도하고 반 년마다 고된 수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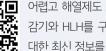


[건강플러스] HLH,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출연: 소아청소년혈액종양과 강성한 부교수

우리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T림프구와 대식세포가 과 도하게 활성화돼 정상 조직 이나 세포, 장기들을 공격하 는 현상을 혈구탐식 림프조 직구증(HLH)이라고 합니다. 소아의 경우 감기와 구별이



어렵고 해열제도 효과가 없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기와 HLH를 구별하는 방법과 주요 증상, 치료법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건강플러스에서 알려드립니다.

